

2019년 5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 5.7% 급락, 미국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 발생

경기 둔화 우려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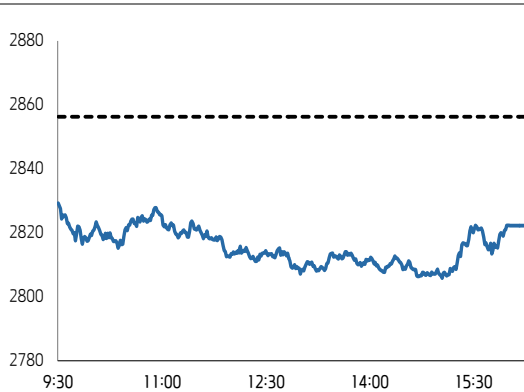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며 매물 출회, 유럽과 미국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 둔화가 이를 촉발, 중국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 했으며, 국제유가 또한 5% 넘게 급락하며 투자심리 위축(다우 -1.11%, 나스닥 -1.58%, S&P500 -1.19%, 러셀 2000 -1.97%)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상무부 또한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 라고 발표하며 협상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 이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이슈가 부각. 특히 국제유가가 5.7% 급락하고, 미국의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미국 제조업 PMI(52.4→50.6)가 10년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수주가 감소. 이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 여기에 제조업 고용도 둔화되는 등 제조업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음. 한편, 뉴욕 연은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미국 가계는 연간 831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 결국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미국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서비스업 지수 또한 급감(52.9→50.9)

여기에 독일(44.4→44.3)과 유로존(47.9→47.7) 제조업 PMI 또한 예상을 하회하는 등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도 부각. 더불어 이날 발표된 ECB 통화정책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이 하반기 유로존 경기는 예상만큼 반등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관련 우려가 높아진 요인. 결국, 오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부각된 양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59.59	-0.26	홍콩항셱	27,267.13	-1.58
KOSDAQ	696.89	-1.42	영국	7,231.04	-1.41
DOW	25,490.47	-1.11	독일	11,952.41	-1.78
NASDAQ	7,628.28	-1.58	프랑스	5,281.37	-1.81
S&P 500	2,822.24	-1.19	스페인	9,114.00	-1.28
상하이종합	2,852.52	-1.36	그리스	725.56	-0.81
일본	21,151.14	-0.62	이탈리아	20,136.39	-2.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금융주, 에너지 업종 부진

애플(-1.71%)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중국내 매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마이크론(-2.62%), 퀄컴(-1.52%), NVIDIA(-3.21%), AMD(-3.83%), 브로드컴(-3.39%), 아나로그디바이스(-2.67%), 자일링스(-2.28%) 등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 GM(-1.18%), 포드(-1.20%) 등 자동차 업종, 3M(-1.44%) 등 산업재도 대 중국 매출 감소 우려속에 하락세를 보였다.

아마존(-2.38%)도 대 중국 수입관세 부과 여파로 향후 기업이익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한편, UPS(-1.36%), 페덱스(-0.87%), CSX(-2.66%), 노퍽크(-1.73%) 등 물류 회사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물류 감소 우려로 하락 했다. 엑손모빌(-2.34%), 코노코필립스(-5.63%), EOG리소스(-4.37%)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JP모건(-1.97%), BOA(-2.56%)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반면, L브랜트(+12.84%)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전일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2.37%)도 상승을 이어갔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67%	대형 가치주 ETF(IVE)	-1.19%
에너지섹터 ETF(OIH)	-4.95%	중형 가치주 ETF(IWS)	-1.16%
소매업체 ETF(XRT)	-1.33%	소형 가치주 ETF(IWN)	-1.87%
금융섹터 ETF(XLF)	-1.41%	대형 성장주 ETF(VUG)	-1.37%
기술섹터 ETF(XLK)	-1.76%	중형 성장주 ETF(IWP)	-1.6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58%	소형 성장주 ETF(IWO)	-1.99%
인터넷업체 ETF(FDN)	-1.83%	배당주 ETF(DVY)	-0.83%
리츠업체 ETF(XLRE)	+0.4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9%
주택건설업체 ETF(XHB)	-1.3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0%
바이오섹터 ETF(IBB)	-0.87%	미국 국채 ETF(IEF)	+0.61%
헬스케어 ETF(XLV)	-0.35%	하이일드 ETF(JNK)	-0.45%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1.66%	Long/short ETF(BTAL)	+0.9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1.53	-3.13%	-4.58%	-9.06%
소재	334.66	-1.53%	-2.64%	-5.58%
산업재	619.80	-1.59%	-2.60%	-4.39%
경기소비재	897.92	-1.34%	-3.14%	-5.34%
필수소비재	593.21	-0.07%	-0.24%	+2.17%
헬스케어	1,032.68	-0.37%	+0.88%	+1.22%
금융	441.03	-1.49%	-1.60%	-3.21%
IT	1,282.69	-1.73%	-3.64%	-7.31%
커뮤니케이션	162.37	-1.26%	-1.92%	-4.01%
유틸리티	302.53	+0.82%	+2.37%	+2.81%
부동산	226.66	+0.51%	-0.05%	+2.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9%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285 계약) 영향으로 1.50pt 하락한 264.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8.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제조업 둔화가 서비스업 둔화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점, 국제유가가 이로 인해 5.7%나 급락한 점이 우려를 높였다. 이는 향후 한국 수출 둔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한국 기업 실적 위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EU 의회 선거에서 영국은 보수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으로 이동해 현 여당인 보수당이 참패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부담이다. 이 여파로 메이 총리 사퇴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영국발 정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양국 정부 모두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제화 문제'를 한발씩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은 불가피 하지만 연초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주요국과 달리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무역협정 문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다. 화웨이 문제가 극단적인 사태로 확산되기 보다는 미국의 한발 물러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유럽 제조업 지표 부진

5 월 미국 제조업 PMI 가 전월(52.4) 보다 크게 둔화된 50.6 으로 발표되었다. 서비스업 PMI 또한 전월(52.9) 보다 위축된 50.9 로 발표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기준선을 하회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4 월 미국 신규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6.9% 감소했다. 모기지 금리 급등과 임금상승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신규주택 재고는 5.6 개월에서 5.9 개월로 증가했다.

5 월 독일 제조업 PMI 는 전월(44.4)과 예상치(44.8)을 하회한 44.3 으로 발표되었다. 서비스업지수 또한 전월(55.7) 보다 둔화된 55.0 으로 발표되었다. 독일의 Ifo 기대지수는 전월(95.2) 보다 개선된 95.3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행지수가 전월(103.3) 보다 둔화된 100.6 으로 발표되었다. 이 결과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99.2) 보다 둔화된 97.9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5.7% 급락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자 공급감소 가능성을 약화 시킨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주요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한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및 유로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둔화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달러 약세폭이 확대되자 강세로 전환했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 사퇴 가능성이 부각되자 정치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 약세 여파로 파운드화 약세는 제한되었다.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6 월 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하락 요인 이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국채가격이 급등 했으며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가 2.3%를 하회하는 등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했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미국의 물가는 연준의 목표인 2%에 다가서고 있다” 라고 주장 했으나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7%, 철근도 1.5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91	-5.71	-8.17	Dollar Index	97.857	-0.19	+0.00
브렌트유	67.76	-4.55	-6.69	EUR/USD	1.1182	+0.29	+0.07
금	1,291.00	+0.90	-0.08	USD/JPY	109.6	-0.69	-0.23
은	14.613	+1.14	+0.51	GBP/USD	1.2660	-0.04	-1.08
알루미늄	1,797.50	+1.04	-3.36	USD/CHF	1.0033	-0.63	-0.66
전기동	5,926.00	-0.03	-2.85	AUD/USD	0.6899	+0.25	+0.10
아연	2,520.00	-0.87	-4.44	USD/CAD	1.3471	+0.27	+0.08
옥수수	389.75	-1.20	+2.84	USD/BRL	4.0391	-0.01	-0.16
밀	470.25	-0.53	+0.70	USD/CNH	6.9262	-0.11	-0.03
대두	821.50	-0.84	-2.17	USD/KRW	1189.20	-0.30	-0.19
커피	93.50	+1.91	+2.02	USD/KRW NDF1M	1188.47	-0.09	-0.2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17	-6.52	-7.76	스페인	0.849	-1.70	-5.30
한국	1.800	-2.50	-2.10	포르투갈	1.009	-1.40	-6.60
일본	-0.059	-0.30	+0.20	그리스	3.417	+1.80	-3.50
독일	-0.120	-3.40	-2.50	이탈리아	2.636	+0.50	-4.70